

“모래 확실히 비벼 발 지탱”

크리크골프와 함께 하는 김하늘의 실전 레슨

26. 오르막 벙커샷 노하우

몸을 정렬하고 체중을 오른발에 실어야 클럽헤드는 닫거나 스퀘어 상태에서 셋업 핀에 가깝게 붙인다는 생각으로 임팩트

벙커샷은 어렵다. 공이 모래 위에 가지런히 잘 놓여 있어도 두려운 게 벙커샷이다. 그런데 벙커에 빠진 공이 이처럼 치기 좋게 잘 놓여 있는 것만은 아니다. 공이 모래 깊숙한 곳에 박혀 있거나 내리막 또는 오르막 경사에 멈춰 있을 때가 많다.

이런 상황은 프로들에게도 쉽지 않다. 특히 내리막 경사에 공이 놓여 있을 때는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김하늘은 “공이 내리막 경사에 놓여 있을 때는 무조건 탈출이 목적이다. 핀에 가깝게 붙인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운이 따라야 한다. 욕심 내지 않고 벙커에서만 빠져 나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자주 나오지 않는다. 대부분의 벙커는 그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내리막보다는 오르막 경사에 더 많이 떨어진다. 오르막 경사는 내리막 경사에 비해 쉽다. 방법만 잘 알고 있으면 핀에 가깝게 붙일 수도 있다. 체중은 오른발 쪽에 둔다. 거의 100%를 오른발 쪽에 실어두는 게 좋다.

오른발에 체중을 확실하게 실어두기 위해선 발로 모래를 비벼 확실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 준다. 야구 선수들이 타석에서 땅을 고르며 자리를 잡는 것과 비슷하다. 임팩트 순간 한번에 힘을 모아쓰기 위한 방법이다.

클럽 헤드는 완전히 오픈시키는 것보다 스퀘어 상태이거나 조금 닫은 상태로 셋업하는 게 좋다. 헤드를 열면 열수록 공은 높게 뜨지만 앞으로 보내는 게 쉽지 않다. 거리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 김하늘은 “벙커샷은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더 힘들어진다. 벙커샷에 자신이 없다면 핀에 가깝게 붙인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선 이 상황에서 탈출해 다음 샷으로 홀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야 큰 실수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KPGA 프로골퍼 김하늘
정리 | 주영목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1 내리막 경사에 공이 놓여 있을 때는 탈출을 목적으로 한번에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주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나오면 프로들도 머리가 아프다. 2 경사면에 따라 몸을 정렬하고 체중을 오른발 쪽에 확실하게 실어둔다. 모래를 비벼 발이 잘 지탱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헤드는 오픈하는 것보다 스퀘어 또는 약간 닫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다. 오르막 경사이기 때문에 공을 띄우는 건 어렵지 않다. 페이스를 많이 열수록 공은 높게 뜨지만 멀리 보내기 어려워진다.

편집 | 정승수 71hss2@donga.com 트위터 @hss2

이동준 “삼성에서 생애 첫 플레이오프 났다”

포워드 빈자처 친형 이승준 대신 채워 김동광 감독 “가장 꾸준히 활약” 칭찬



파워포워드 이동준(32)은 삼성이 새 시즌을 앞두고 야심 차게 영입한 자유계약선수(F.A)다. 지난 시즌을 끝으로 FA 자격을 얻은 이동준은 사인&트레이드를 통해 계약기간 3년, 연봉 4억원에 오리온스에서 삼성으로 옮겼다. 친형 이승준(34)이 동부로 떠난 공백을 메우게 됐다.

빅맨 포지션이 취약한 삼성에서 이동준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그는 외국인선수 브라이언 데이비스와 함께 팀의 골밑을 책임져야 한다. 중국 선전에서 열린 ABA대회에선 중국 심판들의 편파판정에 희생양이 돼 경기 파울트러블에 시달리면서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그러나 김동광 감독은 “우리 팀에서 가장 꾸준히 활약하는 선수다”며 칭찬을 잊지 않았다.

최근 이동준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외국인선수와의 호흡이다. 그는 “국내선수들끼리 연습경기를 할 때는 내가 득점과 리바운드를 도맡았지만, 이제는 혼자 플레이해선 안 된다. 외국인선수와 어떻게 손발을 맞추느냐가 중요하다.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대회를 통해 어떤 점이 부족한지 알았으니 시즌 개막 이전에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힘만 한 야우”다. 삼성을 떠난 이승준 대신 푸른색 유니폼을 입게 된 이동준이 스포츠동아와 인터뷰 도중 활짝 웃고 있다. 선전(중국) | 정지욱 기자

2007~2008시즌을 시작으로 오리온스에서 5시즌을 뛰는 동안 이동준은 단 한 차례도 플레이오프(PO) 무대를 밟지 못했다. 유니폼을 갈아입은 만큼 올 시즌에는 기필코 PO 무대에 서겠다는 것이 그의 다짐이었다. 이동준은 “한 시즌 동안 몇 점을 넣고 어떤 선수가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매 경기에 충실하다 보면 한 단계씩 나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에는 꼭 플레이오프에 가고 싶다”며 PO 진출에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선전(중국)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신세계 선수들 새둥지는 ‘하나·외환 농구단’

조동기 심임감독 지휘봉...어제 창단식 “선수들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어 기뻐”

하나·외환 여자농구단이 12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창단식을 열고 2012~2013시즌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4월 팀 해체를 선언한 신세계 쿨캣을 인수해 새로 탄생한 하나·외환 여자농구단은 신세계 시절부터 코치로 팀을 지도했던 조동기 심임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고, 김희선 전 KT 코치를 영입해 코칭스태프를 꾸렸다. 경기도 부천시와 연고 협약을 맺었고, 정식 팀 명칭은 2013년 공모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팀 해체로 어려움을 겪었던 선수들은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버린 모습이었다. 모여서 함께 운동할 곳은 있었지만, 팀이 해체된 상

황이라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주축 선수 중 한 명이 중국으로 이적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나돌아 선수들이 더 불안감에 휩싸였다. 다행히 하나금융그룹이 팀을 인수하면서 이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하나·외환 여자농구단은 이달 중순 대만으로 전지훈련을 떠나는 등 본격적으로 시즌 준비에 돌입했다.

조 감독은 “팀이 없었으니 선수들이 많이 힘들어했다. 하나금융그룹이 인수해준 덕분에 이제는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웃었다. 이어 “부상선수들이 많이 힘든 시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려운 결정을 해준 구단 관계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최용석 기자 gyong@donga.com 트위터 @gyong11

체조 양학선, 조계사 자승스님 예방

2012년 런던 올림픽 남자기예 체조 금메달리스트인 양학선(20·한체대·사진)이 12일 서울 견지동 조계사를 방문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했다. 불교신자인 양학선은 조성동 국가대표 감독, 정동화 대한체조협회장 등 체조 관계자들과 함께 조계사를 찾아 자승스님에게 금메달을 걸어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현대백, 양궁선수권 여자단체 세계신 타이

조은신 감독이 이끄는 현대백화점이 12일 경북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44회 전국남녀양궁종합선수권대회 및 2013년 국가대표 1차 선발전 여자단체전 싱글라운드에서 4129점을 기록해 2005년 뉴질랜드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박성현-윤미진-윤옥희가 세운 세계 기록과 타이틀을 이뤘다. 현대체철도 남자부에서 2012년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오진혁과 김주완, 김연철이 4084점을 쏘며 단체전 싱글라운드 한국기록을 16년 만에 갈아 치웠다.

美 LPGA 브리티시오픈 관련포인트

신지에 2주연속 여왕? 15세 리디아 고 반란?

오늘 티오프...태극양자 시즌 7승째 도전 신 “연장승부로 힘들지만 샷 감각은 최고” 고 “부담감 떨치고 메이저대회 즐기겠다”

미 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한국양자군단이 시즌 7승째에 도전한다. 13일(한국시간)부터 나흘간 영국의 로열 리버풀 골프장(파72)에서 열리는 브리티시오픈의 주요 관련 포인트를 짚어봤다.

●큰 대회에 더 강하다

한국 선수들은 올 시즌 19개 대회에서 6승을 합작했다. 그 중 3개 대회는 메이저 및 메이저급 대회다.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는 유선영(26·정관장), US여자오픈에서는 최나연(25·SK텔레콤)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제5의 메이저대회라 불리는 에비앙마스터스에서는 박인비(25)가 우승을 차지했다. 한 시즌 역대 최다승(2009년, 12승) 기록 경신은 어려워 보이지만 순도 면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신지에 2주 연속 우승 노린다

신지에(24·미래에셋)의 부활도 반갑다. 신지에는 1년10개월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지난주 킹스밀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부상 이후 짓눌려 왔던 심리적인 불안감을 떨쳐버렸다”고 밝힌



지난주 킹스밀 챔피언십에서 1년10개월만에 우승하며 ‘지존’의 면모를 되찾은 신지에(왼쪽)와 LPGA투어 최연소 우승 기록 보유자인 리디아 고(오른쪽)가 올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브리티시오픈에서 우승에 도전한다. 두 선수의 스포츠동아B

만큼 매섭게 버디쇼를 펼치던 지존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브리티시여자오픈과의 인연도 끈끈하다. 신지에는 2008년 미LPGA 정규 투어 데뷔전이었던 브리티시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신지에는 “연장 승부로 체력이 바닥났다. 하지만 샷 감각이 돌아왔기 때문에 2주 연속 우승을 노려보겠다”고 밝혔다.

●리디아 고 활약 여부도 관심

골프 천재 리디아 고(15·한국이름 고보경)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관심사다. 리디아 고는 지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TODAY'S 스페셜+

야구팬 51% "LG, SK에 승리 예상"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스포츠도토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인 베타맨(www.betman.co.kr)이 13일(목) 열리는 프로야구 3경기를 대상으로 한 야구도토 스페셜플러스 48회차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참가자의 50.97%는 LG-SK(1경기)전에서 LG 승리를 예상했다.

LG 홈

50.97%

원정 SK

34.74%

(12일 오전 8시 기준)

● 경기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3일(목) 18:20대전 LG vs SK / 넥센 vs 두산 한화 vs 삼성

● 경기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3일(목) 21:50대전 토론토 vs 시애틀 / 휴스턴 vs 필라델피아 텍사스 vs 콜리콜랜드

● 경기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3일(목) 13:50대전 LG vs SK / 넥센 vs 두산 한화 vs 삼성

9/13(목) 발매일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도 강력히 처벌받게 됩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식 스포츠베팅 사이트 | betman.co.kr